

위스타트(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e Start Home Visiting Intervention Program on the Development of Infants from Low-Income Families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황혜정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Professor : Hye Jung Hwang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IV.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We Start home visiting intervention program on the positive changes of infants and their low-income families. The subjects were 171 18~36-month olds and their mothers living in We Start and non We Start areas. The instruments used were Developmental Profil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CGPSS) an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Developmental Profile showed positive changes in all domains(physical development, self-help skills, soci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ability). Second, the result of CGPSS showed positive effect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Third, the result of HOME showed positive effects on mothers' emotional and language responses. In conclusion, We Start home visiting program for infants from low-income families is an effective early intervention program to end intergenerational transition of poverty in Korea.

주제어(Key Words) : 위스타트(We Start), 가정방문(home visiting), 중재프로그램(intervention program), 저소득가정(low-income family)

Corresponding Author : Hye Jung Hwa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94-6 Yiui-Dong, Yeongtong-Gu, Suwon, Kyonggi-Do, 443-760, Korea Tel: +82-31-249-9039 Fax: +82-2-784-5888 E-mail: jinhwang@kgu.ac.kr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1. 서론

We Start 운동은 2004년 5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We)이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삶의 출발(Start)을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이다. 즉, 저소득층 아동들이 복지·교육·보건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이다. 또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해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따라 복지·교육·보건을 통합한 전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가 더욱 커지기 전에 이를 사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시(市)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교육·보건 공동체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념과 체계를 바탕으로 We Start 사업이 시행되었다(<http://westart.joins.com/>).

'Start'는 여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빈곤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반 명칭이기도 하다. 미국(Head Start), 영국(Sure Start), 캐나다(Fair Start), 호주(Best Start) 등의 국가는 빈곤을 예방하려면 어린 나이 때부터 중재(intervention)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Start 운동으로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 복지, 건강, 정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e Start는 이러한 외국의 Start 프로그램을 표방하며 시작되었다.

2009년에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9)에 의하면, 만 0세~18세 미만 아동청소년빈곤율은 전체적으로 약 7.8%이며,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약 4.2%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에 있는 차상위가구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있는 1,538가구 중 약 15%가 빈곤층(극빈층 8.1%, 차상위층 6.8%)에 해당한다는 조사도 있다(김미숙, 배화옥, 2007). 많은 학자들은 빈곤이 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빈곤 가정의 아동들은 인지발달, 신체발달, 적응능력 등이 일반아동에 비해 열등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타고난 결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인 자극과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자극해 주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빈곤 가정의 부모들은 아동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줄만한 능력이나 동기가 부족하여 충분한 지도 감독이나 역할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성격의 형성이나 발달에 있어서 장애를 겪으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나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고, 극도의

현실주의에 사로 잡혀 힘든 작업을 회피하거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다(Alexander & Entwisle, 1988; McLoyd, 1998). 이러한 빈곤 아동의 신체발육 부진, 질병, 장애는 평생 동안 학습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모의 보살핌 부족은 자신감 부족이나 정서발달 부진 및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져 낮은 학업성취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취학전 학습준비 부족 및 교육자원에의 접근 제약은 교육과정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격차를 확대시켜 지식사회에서 필수적인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약되거나 목표 상실에 이르게 한다. 이에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일보 등 여러 단체들은 지난 2004년 5월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 슬로건 하에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돕기로 뜻을 모으고 We Start 운동을 출범시켰다.

We Start 운동은 대상 아동을 영아(0~3세), 유아(4~6세), 학령아동(7~12세)으로 구분하여 복지·교육·보건사업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 교육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제공, 실시한다. 교육중재란 아동의 발달을 강화하도록 계획된 일련의 교육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Ramsey와 Ramsey(1992)에 의하면 교육중재의 목적은 가정에서 적절한 자극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의 부족한 지적 발달을 예방하는 것이다. 어린시기에 실시되는 조기교육중재란 아동이 공식적 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기 이전 시기에 보완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려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를 말하며(Ramsey & Ramsey, 1992, 2006), 가정과 양육환경에서 부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성취를 증진시키고 이후의 교육적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둔다(Ramsey & Ramsey, 2006).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기본 가정은 환경적인 요소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기 중재가 의미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Ramsey와 Ramsey(1992)는 조기교육중재 프로그램이 발달상 더 이른 시기에 시작하고 더 장기간 지속될수록, 또한 더 높은 강도로 실시될수록 그 효과는 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1960년대 이래 각종 계층비교 연구들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를 보인다고 보고된 이후, 많은 중재프로그램들이 이들의 열등함을 보상해주려고 시도되었으며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도 전개되었다. 미국 Carolina Abecedarian Project는 영아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중재를 실시하고, 종결된 4~7년 후에 중재에 참여한 아동의 발달을 측정된 결과 지적발달과 학업성취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Campbell & Ramsey, 1994).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의 장기적 효과연구를 보면, 만 3세와 4세에 조기중재를 받은 유아는 14세 때 학업

성취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비교집단에 비해 범죄율이 1/5에 불과하였다(Schweinhart, Barnes, & Weikart, 1993). 대표적인 중재프로그램인 Head Start는 기관중심, 종일제, 가정방문, 영아를 대상으로 한 Early Head Start 등 여러 형태로 1964년 이래 실시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프로그램이 끝난 지 20년 후까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이나 부모에 비해 훨씬 더 성취지향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저소득층 영유아들이 자신이 처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적의 발달을 이루어 가도록 돕고자 영유아를 위해 개발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김명순, 황혜정, 유지영, 안현숙, 2006)과 'We Start 유아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김명순, 정미라, 배선영, 2006)이다. 본 연구에서는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We Start 경기도 마을 복지, 교육, 보건 욕구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이봉주, 양수, 김명순, 2004)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의 빈곤 영아들의 상황과 실제의 욕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진행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빈곤층 영아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며, 동년배 다른 영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나 혹은 절대적으로 교육, 사회, 경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게 가지고 있다. 이들의 환경과 발달상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영아의 발육상태는 중상층 영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발육을 보이고 있다. 빈곤으로 인해 어린 시기에 영양부족을 경험함으로써 체격과 건강한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지능 및 사회적 적응 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모들로 인해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영아들은 취침이나 기상, 식사, 청결 등의 생활 습관이나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몸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김향숙, 2001).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빈곤층의 가족은 자신들이 받는 스트레스, 불안감, 억압감, 초조감으로 인해 영아에게 학대, 애정결핍을 야기하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Nievar & Luster, 2006). 이로 인해 영아들은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불안감을 표현하고, 타인에 대한 애착 결여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기 보다는 행동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으며, 감정 표현에서도 좋음과 싫

음, 기쁨과 슬픔, 분노와 친밀함 등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빈곤으로 인해 영아는 충분한 인지,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중류층 영아에 비해 지적 능력 발달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한 지적 반응만을 요구하며, 이들이 나름대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점차 중류층의 유아들과 인지발달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부모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 자녀와 대화하는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와 중류층 자녀 간의 인지적인 능력에 차이를 가져온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소득층 영아들은 중류층 영아들에 비해 언어적인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랫동안 미숙한 발음을 하며, 문장의 길이가 더 짧은 경향을 보인다(Edwards, 1989; Heath, 1983). 이러한 이유에 대해 연구자들은 저소득층 부모들이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할 시간이나 상황이 되지 않거나 이러한 시간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중류층 영아에 비해 어휘수가 많지 않고,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지 못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책을 가정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김명순, 2001). 이처럼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은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책임기를 하는 적절한 모델을 보여주지 않으며, 자녀와 문해활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는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나정, 김미숙, 이수현, 2004).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를 안아주거나 칭찬해 주고 지지적인 표현을 해 주는 일이 드물었고, 대신 자녀를 위협하고 무시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기능 발달을 촉진하는 질 높은 상호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5). Conger(1984)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비판적이고, 애정 표현을 덜 사용하고, 자녀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 보였고, 덜 적극적으로 있을 뿐 아니라 즉흥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일을 하였을 때도 칭찬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부모들은 다른 계층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지만 학업과 관련된 가정교육 문제에 신경을 쓰기에는 생계활동이 너무 바빠고 자녀들이 배우는 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저소득층 아동들은 다른 계층의 아동들에 비해 생활환경,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아동기부터 교육기회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1〉 연구대상의 구분

	평균 월령	남아		여아		전체	
		n	%	n	%	N	%
실험집단	25.4	36	21.1	38	22.2	74	43.4
비교집단	24.7	52	30.4	45	26.3	97	56.7
전체		88	51.5	83	48.5	171	100.0

가정 내에 아동의 교육적 가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자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아동은 문화 실존 내지 학습부진을 경험하기 쉽다(조홍식, 1996). 예를 들면, 일반가정에 비해 저소득가정은 그림책을 적게 소유하고 있고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빈도가 낮다고 한다(Teale, 1986).

이러한 저소득가정 영아와 그 부모에게 조기 중재를 통해 이들에게 나타나는 발달적 결핍이나 위험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영아, 부모, 가정환경의 세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의 환경자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저소득가정의 영아 171명과 그들의 어머니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된다. 실험집단은 경기도 광명시, 안산시, 수원시의 We Start 마을에서 영아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74명의 영아와 어머니이며, 비교집단은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영아 97명과 어머니이다. 연구대상 영아의 평균 월령은 실험집단 영아가 25.4개월이고 비교집단 영아가 24.7개월이었다(표 1 참조). We Start 영아 프로그램의 경우 영아의 월령에 따라 2년에 걸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에 새로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만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일상적인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

렵고 불안정한 취업으로 최저임금선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동시에 정부의 공적부조 원조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주변적인 특성을 지닌 계층을 총괄하여 지칭한다(최주명, 2007). We Start 사업에서는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연구도구

1)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김명순, 황혜정 외, 2006; 김명순 외, 2007a, 2007b)은 영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부모에게 자녀양육지식 및 교육 방법을 전달해주는 직, 간접적 지원을 통해 영아의 최적의 발달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중재를 실시하며 특히 영아와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즉, 영아에게만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함께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주양육자가 영아와 상호작용하고 놀이하는 방법을 익혀 주양육자의 변화가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3년 치 활동이 개발되었으며, 각 해마다 주 1회 실시를 기준으로 52주의 활동씩 총 156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18개월~36개월까지의 영아와 주양육자(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이며, We Start 센터에 속해 있는 전문적인 교육 능력을 가진 가정방문교사가 직접 주 1회 가정방문이나 전화방문을 통해 영아와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즉 교육활동은 가정방문과 전화방문의 두 가지 형태가 번갈아가며 진행된다. 가정방문활동은 가정방문교사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교사가 영아와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주양육자가 관찰하고 이를 시연해보게 하는 놀이지도 식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가정방문 1회당 40~5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교사는 영아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의 난이도와 시간을 조절한다. 전화방문활동은 가정방문활동과 짝이 되는 활동으로, 가정방문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주양육자에게 간단한 설명과 함께 교육자료와 부모활동 안내서를 전달만 하며,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교사는 며칠 후 가정에 전화를 걸어

〈표 2〉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활동 구성 및 내용

주	방문형태	중점 영역	활동명	주	방문형태	중점 영역	활동명
1		언어	만나서 반가워요	18		인지	누구일까요?
2		사회정서	마음대로 마음대로	19		기본생활습관	씩씩씩
3		언어	나의 크레용	20		기본생활습관	응가하자 끄끄
4		신체	양말공	21		인지	물이 뽕뽕
5		신체	고리 끼우기	22		인지	둥둥 아기오리
6		신체	영금영금 티널놀이	23		인지	숨바꼭질
7		언어	코코코 찾아볼까?	24		인지	내 뒤에 누굴까?
8		봄 나들이		25		가을 나들이	
9		신체	흔들흔들	26		인지	색망원경
10		언어	가방속에 무엇이 있을까?	27		인지	색매트
11		신체	주물러서 만들어 볼까?	28		언어	누가살까?
12		인지	오물조물	29		인지	그림자 모양놀이
13		언어	봉투인형 놀이	30		사회정서	고마워
14		언어	손인형 놀이	31		사회정서	괜찮아
15		인지	새콤달콤 맛보기	32		신체	탐쌓기
16		인지	사과를 자르면	33		인지	종이컵 놀이
17		사회정서	쪼글쪼글	34		사회정서	카드 만들기

주1. 집 그림은 가정방문활동을 나타내며, 전화기 그림은 전화방문활동을 나타냄.

주2. 봄나들이와 가을나들이는 대상가정이 함께 야외로 나가 견학과 체험학습, 놀이 등을 함께 하며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야외 활동임.

주요양자가 부모활동 안내서를 보고 영아와 교육활동을 잘 진행하는지를 체크한다. 가정방문과 전화방문의 형태로 교육활동이 구성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에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비 절감을 고려한 것이다.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김명순, 황혜정 외, 2006)은 2005년도에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안산시 We Start 마을에서 실시된 후, 2006년도부터 여러 We Start 마을에서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2차년도 프로그램(김명순 외, 2007a), 2008년도에는 3차년도 프로그램(김명순 외, 2007b)이 실시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프로그램의 52개 활동 중 34개의 활동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선정한 프로그램 활동의 구성과 내용은 〈표 2〉와 같으며, 가정방문활동과 전화방문활동의 예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영아 측면, 부모 측면, 가정환경 측면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유아발달측정검사

유아발달측정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Alpern과 Boll(1972)이 개발한 Developmental Profile을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수정한 것이다. 검사의 하위영역은 신체적 발달, 자조성, 사회성, 지적 발달, 의사소통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0~12세까지의 연령 수준에 맞는 발달특징을 나타내는 문항이 39~48개로 총 216문항으로 기술되어 있다. 모든 문항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성취할 수 있는 문항까지만 검사하므로 대상에 따라 실시하는 문항의 수가 다

(표 3) 가정방문활동 예

6주	영금영금 터널놀이
영역	신체
주요 경험	1. 대근육 운동을 연습해본다. 2. 신체 조절력을 기른다.
활동 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베를 대고/등을 대고, 앞으로/ 뒤로) 영아가 보자기 터널을 지나가 본다.
활동 방법	1. 보자기 터널을 방바닥에 고정한다(I·II수준 공통). 2. 영아와 함께 터널을 탐색한다. 터널 안으로 공을 굴려주고 영아가 공을 따라 터널 안으로 기어가도록 한다(I·II수준 공통). 3. 교사가 먼저 터널을 이용해 까꿍 놀이 시범을 보인 다음 양육자와 영아가 터널 속에 몸을 숨겨 보면서 까꿍 놀이를 하도록 돕는다(I 수준). 4.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아가 터널을 지나가 보도록 한다(II 수준).
자료	교사가 미리 제작한 보자기 터널(탈부착 가능), 소리가 나는 부드러운 재질의 공

(표 4) 전화방문활동 예

7주	코코코 찾아볼까?
영역	언어
주요 경험	1. 그림책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에 흥미를 갖는다. 2. 친숙한 사물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활동 개요	양육자가 들려주는 그림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코코코' 놀이를 하면서 물건을 찾아본다.
활동 방법	1. 영아의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지난 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한다. 2. 부모활동 안내서를 보면서 '코코코' 를 하며 물속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활동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 3. 확장 활동과 주의 및 고려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다음 가정방문 날짜와 시간을 확인 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다.
자료	영아용 사물그림책 중 '코코코, 찾아볼까?' (물놀이용 비닐 그림책: 세계대육영화), 부모활동 안내서

르다. 검사는 가정방문교사가 각 문항을 어머니에게 읽어주고 어머니의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한 영아당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점수의 채점은 처음 문항부터 끝까지 합격란에 표시된 개월을 모두 합하면 되고, 상대적인 지수를 산출하여 발달 연령을 측정한다(황혜익 외, 2004a).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검사 시 .96, 사후검사 시 .95였다.

(2) 부모역할만족도 검사

부모역할만족도 검사는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CGPSS)(Cleminshaw & Guidubaldi, 1989)을 연미희(1994)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는 29문항의 5점 척도이며, 하위 영역은 부모역할수행과 부모-자녀관계의 두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부모역할수행은 어머니 자신의 자녀양육 수행에 대한 만족를 측정하며,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자녀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질에 대한 만족를 평가한다.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어머니가 읽고 응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는 가정방문교사가 문항을 읽어주고 응답을 기록하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5~10분 정도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황혜익 외, 2004b). 연미희(1994)가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부모역할수행 영역 .73, 부모-자녀관계 영역 .79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검사 시 .79, 사후검사 시에도 .79였다.

(3) 가정환경자극 검사

가정환경자극검사는 Caldwell과 Bradley(1979)가 개발한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HOME)를 이영(1985)이 수정, 개발한 것이다. 영아의 물리적 환경,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상태,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태도,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의 6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는 가정방문교사가 어머니와 면접하면서 동시에 어머니와 영아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여 체크하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87(이영, 1985), 관찰자간 신뢰도는 .94(이정희, 1994), .87~.96(이영, 198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사전검사 시 .71, 사후검사 시 .68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We Start 마을에서 실시되는 We Start 영아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광명시, 안산시, 수원시 We Start 마을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사전검사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째 주와 둘째 주인 2008년 4월에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 충분한 대상을 구하지 못해 We Start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화성시와 오산시의 저소득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법정저소득가정의 영아를 추가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각 가정을 담당한 가정방문교사 6명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 3명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가정방문교사는 We Start 마을의 보육 사업을 위해 채용된 보육교사로,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과 최소 1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가정방문 보육교사와 비교집단의 검사를 담당할 대학원생들에게 검사의 실시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

〈표 5〉 영아 발달수준의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 집단 평균			비교 집단 평균			F
	사전	사후	조정사후	사전	사후	조정사후	
신체적 발달	31.15	39.65	37.94	30.37	34.72	30.59	30.699***
자조성	34.97	51.90	49.77	32.27	37.82	34.18	71.922***
사회성	32.91	44.13	42.16	31.17	37.72	33.86	24.192***
지적 발달	29.48	37.63	36.63	31.15	36.10	31.20	22.507***
의사소통능력	31.00	42.22	41.34	31.85	38.54	33.53	15.973***
전체	31.90	43.11	41.32	31.33	36.96	32.91	47.690***

*** $p < .001$

〈표 6〉 부모역할 만족도의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 집단 평균			비교 집단 평균			F
	사전	사후	조정사후	사전	사후	조정사후	
부모역할수행	3.51	3.51	3.47	3.40	3.38	3.42	1.023
부모-자녀관계	3.46	3.58	3.58	3.49	3.48	3.48	4.968*
전체	3.51	3.57	3.56	3.48	3.47	3.48	3.817*

* $p < .05$

시하고 검사훈련을 위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40~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대상가정에 따라 어머니가 검사문항을 스스로 읽고 응답할 수 있는 경우는 하루에 검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스스로 응답할 수 없거나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또는 검사자가 가정환경 자극검사의 문항을 한 번의 방문에서 충분히 관찰하지 못한 경우에는 두 주에 걸쳐 검사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34주간 교육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33~34주째인 2008년 12월에 사전검사의 대상에게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재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되, 집단의 비동질성과 사전검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영아의 발달수준 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영아의 발달수준을 비교한 사전검

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는 〈표 5〉와 같다. 사전검사 시 연구 대상 영아의 평균 월령은 실험집단 영아가 25.4개월이고 비교집단 영아가 24.7개월이었다. 〈표 5〉에 의하면, 사전검사서 얻은 평균점수는 실험집단 영아가 31.90개월이고 비교집단 영아가 31.33개월로 두 집단 모두 실제 월령보다 6개월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가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영아의 발달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실시여부에 따라 영아의 발달정도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검사 평균점수는 실험집단 영아가 43.11개월, 비교집단 영아가 36.96개월로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을 약 8개월간 실시하였는데, 실험집단의 발달월령은 약 11개월 정도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의 발달월령은 약 6개월 정도 증가하였다. 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 실험집단 영아의 발달수준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 = 47.690, p < .001$). 즉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의 발달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발달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발달($F = 30.699, p < .001$), 자조성($F = 71.922, p < .001$), 사회성($F = 24.192, p < .001$), 지적 발달($F = 22.507, p < .001$), 의사소통능력($F = 15.973, p < .001$)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비교집단 영아에 비해 실험집단 영아의 발

〈표 7〉 가정환경자극의 공변량분석 결과

	실험 집단 평균			비교 집단 평균			F
	사전	사후	조정사후	사전	사후	조정사후	
물리적 환경	4.14	4.16	4.38	4.78	4.44	4.23	.495
적절한 놀이감	6.06	7.16	7.42	7.45	7.71	7.43	.042
자극의 다양성	3.77	4.21	4.31	4.41	4.59	4.50	1.648
모성적 태도	3.58	3.93	3.99	3.98	4.20	4.15	.393
훈육태도	5.27	5.40	5.15	4.10	4.81	5.06	.069
정서/언어적반응	8.24	8.97	8.64	6.55	7.00	7.36	5.437*
전체	30.95	33.87	33.94	30.77	32.08	32.01	2.509

* $p < .05$

달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즉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영아의 여러 영역의 발달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51점과 3.48점으로 보통에서 약간 높은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수는 사후검사 시 실험집단은 3.57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비교집단은 3.47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실험집단의 증가 점수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비교집단의 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였다($F = 3.817, p < .05$). 즉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에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하위영역 중 부모역할수행에 관한 부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 = 1.023, p > .05$),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실험집단의 어머니가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F = 4.968, p < .05$). 즉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어머니는 자신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겠다.

3. 가정환경자극 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정환경자극을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정환경자극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후검사 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가정환경자극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 = 2.509, p > .05$). 그러나 가정환경자극의 여섯 개 하위영역 중 어머니의 정서적, 언

어적 반응($F = 5.437, p < .05$) 영역에서는 실험집단의 어머니가 비교집단의 어머니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즉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모든 측면에서의 가정환경자극을 증가시켰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어루만져 주거나 자녀에게 말을 건네고 받아주고 칭찬하는 등 정서적,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영아의 발달을 조기중재하기 위해 개발된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그리고 가정환경자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We Start 교육중재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영아의 발달을 향상시켰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신체, 기본생활습관, 사회정서, 인지, 언어 등 여러 발달영역에 고루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발달을 모두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육중재를 통해서 아동의 발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왔다(예, 미국 Carolina Abecedarian Project,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ject, Head Start, Early Head Start 등). 대표적인 중재프로그램인 Head Start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Head Start Impact Study가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수행되었는데, Head Start에 참여한 유아의 읽기 기술이 증진되었고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의 빈도와 심각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건강 상태도 높았다

고 보고하였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5). 또한, 만 3세와 4세 유아의 인지능력과 건강이 향상되었고 3세는 사회, 정서영역에서도 효과가 있었다(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영국의 Sure Start 중재프로그램은 2003년도부터 EPPE(The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중단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Sylva, Melhuish, Sammons, Siraj-Blatchford, & Taggart, 2010), 중재교육을 받은 아동이 읽기와 쓰기, 수학,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발달이 높고 문제행동이 적었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협동, 나누기, 공감능력), 독립심과 자기통제력이 높아졌다(Melhuish, 2009).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수행된 지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삼성어린이집에서는 만 3~5세 저소득가정의 유아와 부모에게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에 걸쳐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재집단 유아는 지능, 언어능력, 사회·정서적 특성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기본생활습관도 향상되었고 초등학교에의 적응도 더 높아 교사가 평정한 학습수행능력도 더 높았다(이은혜 외, 2008).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유아통합 지원사업에서 개발, 수행한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성과보고에 의하면,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3~5세 저소득가정 유아는 비교집단 유아에 비해 의사소통, 일상생활 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적응행동 발달이 향상되었다고 한다(황혜정, 2010). 이처럼 영유아를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 결과가 많지 않지만,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교육중재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둘째,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저소득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부모역할 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부모역할 수행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부모-자녀관계는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프로그램 참여한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는 느끼나 자신이 어머니로서 자녀양육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중재에 참여한 아동 뿐 아니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중재교육은 부모를 함께 중재할 때 그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영유아에게는 부모의 양육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양육과 역할에 대한 자존감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가 같이 실시된다. Head Start Impact Study(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에 의하면, 만 3세 때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유치원 시기의 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성취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어린시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아의 행동을 증진하고 이후의 성취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ure Start의 효과에 관한 연구(EPPE)에서도 부모-자녀관계와 훈육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Melhuish, 2009). 이러한 중재교육의 효과는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 영아 어머니의 역할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설명한다.

셋째,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의 환경자극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다. 본 연구의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향상되었다.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가족문제프로그램인 Even Start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기술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읽기자료를 더 많이 구비하게 되었고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도 높아졌다(St. Pierre, Swarts, Murray, Deck, & Nicke, 1993). 또한 Sure Start에 참여한 유아의 가정도 가정내 학습환경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Melhuish, 2009).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나 학습환경에서도 중재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놀이감 부분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영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므로 어머니의 정서적, 언어적 반응은 향상되었으나 물리적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저소득 가정이므로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나 방법이 달라졌다고 해도 놀이감이나 학습자료 등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험집단 가정은 물리적 환경과 놀이감 구비가 비교집단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에서 매주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발달이나 문제행동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가정의 소득 자체보다는 가족과 환경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단순히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현 물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장단기 효과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을 때(박찬화, 2010),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여타의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크며,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크다고 한다.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We Start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이런 면에서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라에서 실시된 중재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복지관 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0~15회기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We Start 영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은 기존의 중재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영아를 대상으로 장기간(34주)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몇 안 되는 중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그 효과를 알림으로써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한 중재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We Start 마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행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연구 자체를 위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같은 지역에서 선정하지 못한 점, 가정방문교사가 프로그램과 검사를 모두 실시한 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검사자가 다른 점 등 실험설계 및 방법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We Start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실험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영아의 발달적 향상을 확인하였으나, 교육중재가 저소득층 영아의 발달을 일반영아의 발달만큼 보상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는 하지 못했다. Head Start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Lee, Brooks-Gunn, & Schnur, 1988; Lee et al., 1990)에 의하면,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은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에 비해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증가하였지만, 일반 중류가정의 유아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수준이 낮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영아뿐 아니라 일반 영아를 포함하여 교육중재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중재는 장기적으로 실시되어야 그 효과가 높다(Ramsey & Ramsey, 1992).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활동 중 34주의 교육중재를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1년 이상 계속적으로 교육중재를 받는 영아를 대상으로 장기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ynolds(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재기간이 길수록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었다. 유아기의 중재와 초등학교 시기의 중재가 각각 효과적이었지만,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의 지속적인 중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한다(박찬화, 2010).

넷째, 교육중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Barnett(1992)은 유아원 시기의 중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전이되면서 직접적 중재

효과가 점차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중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재교육을 받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종단적 효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순(200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49-72.
- 김명순, 안효진, 안현숙, 유지영, 이회현(2007a).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제 2차년도**. 수원: 경기도.
- 김명순, 안효진, 안현숙, 유지영, 이회현(2007b).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제 3차년도**. 수원: 경기도.
- 김명순, 정미라, 배선영(2006). **We Start 유아용 기관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수원: 경기도.
- 김명순, 황혜정, 유지영, 안현숙(2006).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 프로그램**. 수원: 경기도.
-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율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6.
- 김향숙(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정, 김미숙, 이수현(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 실태 및 요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찬화(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연미희(1994). 한국 부모에 대한 PET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성 평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봉주, 양수, 김명순(2004). **We Start 경기도 마을 복지, 교육, 보건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수원: 경기도.
- 이영(1985). 0-3세용 가정환경자금 검사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연세대학교 원우논총**, 21, 379-397.
- 이영, 신은주, 나중혜(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3(3), 165-177.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과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 김명순, 전해정, 이정림(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 보육서비스의 중단효과: 제2차년도 결과.** 서울: 삼성복지재단.
-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홍식(1996). 기회평등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7(1), 29-55.
- 최주명(2007). 도시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 안산시·시흥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해익, 송연숙, 이경화, 최혜진, 정혜경, 손원경 외(2004a). **유아용 검사편람 I.** 서울: 정민사.
- 황해익, 송연숙, 이경화, 최혜진, 정혜경, 손원경 외(2004b). **유아용 검사편람 II.** 서울: 정민사.
- 황혜정(2010). 시소와그네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성과.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자료집**, 102-126.
- Alexander, K., & Entwisle, D.(1988). Achievement in the first 2 years of school: Patterns and proces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Serial No. 218), 53, 2.
- Alpern, G. D., & Boll, T. J.(1972). *Developmental profile manual.* Indianapolis: Psychological Development.
- Barnett, W. S.(1992). Benefits of compensatory preschool educ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279-312.
- Caldwell, B. M., & Bradley, R. H.(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Unpublished manual.
- Campbell, F. A., & Ramsey, C. T.(1994).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on intellectual and academic achievement: A follow-up study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684-698.
- Cleminshaw, H., & Guidubaldi, J.(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M. Fine(E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Y: Academic Press.
- Conger, J. J.(1984). *Adolescence and youth: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a changing world.* NY: Harper & Row.
- Edwards, P. A.(1989). Supporting lower SES mothers' attempts to provide scaffolding for book reading. In J. Allen & J. Mason(Eds.), *Risk makers, risk breakers: Reducing the risks for young literacy learner* (pp. 222-250). Portsmouth, NH: Heinemann.
- Heath, S. B.(1983). *Way with words: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 London: Cambridge University.
- Lee, V. E., Brooks-Gunn, J., & Schnur, E.(1988). Does Head Start work? A 1-year following comparison of disadvantaged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no preschool and other preschool program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10-222.
- Lee, V. E., Brooks-Gunn, J., Schnur, E., & Liaw, F.(1990). *Are Head Start effects sustained?: A longitudinal follow-up comparison of disadvantaged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no preschool, and other preschool.* Reports, U. S. Department of Education.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185-204.
- Melhuish, E.(2009). Sure Start in England and results of evaluation. *The Start programs in th world: Innovative practices with children in poverty*, Korea, 136-159.
- Nievar, M. A., & Luster, T.(2006). Developmental processes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n application of McLoyd's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8(2), 320-331.
- Ramsey, S. L., & Ramsey, C. T.(1992).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 with disadvantaged children - to what effect?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1, 131-140.
- Ramsey, S. L., & Ramsey, C. T.(2006). Early educational interventions: Principles of effective and sustained benefits from targeted early educational programs. In A. K. Dickinson & S. B. Neuman(Eds.),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NY: Guilford.
- Reynolds, A.(1994). Effects of preschool plus follow-on intervention for children at risk.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787-804.
- Schweinhart, L. J., Barnes, H. V., & Weikart, D. P.(1993).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Monographs for

- the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No. 10. Ypsilanti, MI: High/Scope Educational Research Foundation.
- St. Pierre, R., Swarts, J., Murray, S., Deck, D., & Nicke, P.(1993). *National education of Even Start Family Literacy Program, report on effectivenes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Policy and Parenting.
- Sylva, K., Melhuish, E., Sammons, P., Siraj-Blatchford, I., & Taggart, B.(Eds.)(2010). *Early childhood matters: Evidence from the effective pre-school and primary education project*. London: Routledge.
- Teale, W. H.(1986). Home background and young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In W. H. Teale & E. Sulzby(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Norwood, NJ: Ablex.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5). *Head Start impact study: First year findings*. Washington, DC: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10). *Head Start impact study: Final report*. Washington, DC: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 <http://westartjoins.com/>

접 수 일 : 2011년 1월 2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2월 14일